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현일선\*, 배윤조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Il-Seon Hyeon\*, Yun-Jo Bae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연구이다.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80명이었다. 실험처치 및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되었다. 교육 전과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교육 후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후 자기효능감( $p=.045$ ), 수행자신감( $p < .001$ ) 및 전공만족도( $p=.018$ ) 모두 유의하게 증가되어,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융복합기반, 수행자신감, 자기효능감,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the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with a view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80 sophomore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to April 2016.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target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were evaluated using the structured survey, and after the education,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target students was evalu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l the self-efficacy( $p=.045$ ), confidence( $p < .001$ ) and department satisfaction( $p=.018$ ) increased significantly, indicating that the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was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 **Key Words** : Core basic nursing skills. Convergence-Based. Confidence. Self-efficacy.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현일선(hhis1004@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8, 2016

Revised December 21, 2016

Accepted January 20,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며[1], 이를 위해 간호지식은 이론교과목에서 익히고, 임상에서 필요한 간호술기는 실습실에서 학습하여 임상실습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임상 현장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이해, 가치관과 태도 등을 길러주며 간호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2].

그러나 최근 환자 권리 및 환자 안전 측면에서 간호학생들이 직접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익혀야 하는 기본간호술기를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직접 간호의 부재로 인하여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한 신규간호사의 실무 능력이 임상 현장이나 환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3, 4, 5],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수행자신감의 결여와[6] 업무수행에 제한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 임상 현장에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취업 병원에서 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7], 이는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1].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KABONE)에서는 간호학생이 졸업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학습성과 12가지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간호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핵심기본간호술 실행이다. 핵심기본간호술이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로써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8].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저학년 기본간호학을 통해 일부 교육을 받고 바로 임상실습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실습의 첫 경험은 향후 간호에 대한 동기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9].

이에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면서 간호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행자신감은 학습자기효능

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10],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이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을 증가시켜 수행자신감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10].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고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사고가 가능하다[12].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면 실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실습 만족도가 높아진다[13]. 이에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의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그치지 않고, 교내에서 수행위주의 실습 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4].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유형과 수행자신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연구[10, 13, 14, 15, 16]가 대부분이었고, 핵심기본간호술 학습방법과 관련된 연구는[1, 17, 18] 대부분 연구대상자가 고학년 간호학생과 신규간호사에 관한 것이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 중요한 수행능력이지만, 수행자신감이 낮은 간헐적 위관영양, 근육주사, 기관내흡인 항목[15]과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간호사로부터 97.9%로 가장 많이 위임받고 있는 업무이며, 임상실습 시 가장 많이 수행하게 되는 활력징후 측정[19]에 대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학습, 이론과 실습 및 자율실습을 융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실습교육을 시행하여, 그 교육이 임상실습에 투입되기 전의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추후 핵심기본간호술의 효율적인 실습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융복합기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융복합기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시행한 후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1.3 연구 가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자기효능감이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수행자신감이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공만족도가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 2. 본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시의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62명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도 탈락자 없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paired t-test 기준으로 G\*Power 3.19 program을 통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효과크기 .3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인 75명을 충족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Hong[21]이 수정하고, 번역한 2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

점, '조금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부정적 문항 13개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2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2.3.2 수행자신감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 20개 중[8] 활력징후 측정, 근육주사, 간헐적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육 전과 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진단 방식으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22]이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5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다.

#### 2.3.4 핵심기본간호술 수행평가 도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 및 프로토콜[8]을 사용하였다. 항목 중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활력징후 측정, '중' 난이도의 근육주사와 간헐적 위관영양, '고' 난이도의 기관절개관 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활력징후 측정 항목의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토콜 중 체온을 고막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고막체는 16항목과 맥박과 호흡 8항목 및 혈압 22항목으로 총 46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평가는 46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10분 이내에 술기를 수행하지 못하면 전체 점수에서 1점을 감하였다. 근육주사(22항목, 7분), 간헐적 위관영양(25항목, 10분), 기관절개관 관리(29항목, 15분) 항목 역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각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술기를 수행하지 못하면 전체 점수에서 1점을 감하였다. 측정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2.4 연구 절차

### 2.4.1 사전 조사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시작하기 전 80명의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 2.4.2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구성 및 평가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자체 개발한 동영상상을 이용하여, 사고력과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사전학습과 이론과 모형을 이용한 실습 및 자기주도적 자율실습을 융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가지 술기[8]중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활력정후 측정, 근육주사[14]와 2학년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성과 도출 항목 중 수행자신감이 낮게 나타난 간헐적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14, 1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4명이 한조가 되어 동영상상을 시청하고 분석하여 토론한 후, 기본간호학 교수가 항목별 이론교육 및 시범을 보이고 조별로 모형을 이용하여 실습을 시행한 후 자율실습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2일에서 4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술기별로 2시간씩 조별 총 8시간 교육하였으며, 난이도에 따라 교육시간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실습실을 개방하여 사전 토론 시간 1시간과 교육 후 술기별 2시간씩 총 12시간의 자율실습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실습조의 구성은 4명씩 5개 조로 20명 단위로 4팀으로 구성하였으며, 팀별 수업과 자율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날짜와 시간, 교육내용을 미리 공지하였고, 사전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수행능력평가는 기본간호학교수 1명과 실습조교 1명이 하였으며, 실습 장소는 K대학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실을 사용하였으며, 실습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실습조교가 담당하였다. 실습조교는 간호사 경력 3년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자율실습 전담 경력 2년인 실습전담 조교로 항목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을 한 후 두 차례 모의테스트를 하여 평가 변이를 최소화 한 후 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였다.

### 2.4.3 사후 조사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과 수행평가를 모두 마친 당일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 참여 중 대상자의 자유의지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시행하기 전·후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평가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80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세 이하가 91.3%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86.3%였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52.5%였다. 입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53.8%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 및 선생님 권유 22.5%와 취업을 고려가 20.0% 순이었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87.5%,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51.3%에서 '만족한다'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항목인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으로는 동료가 찍은 비디오가 90.0%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간호학실습 73.8%, 자율실습 61.3% 순이었고, 성적은 상 25%, 중 46.3%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0	73(91.3)
	21~23	6(7.5)
	≥24	1(1.2)
Gender	Male	11(13.8)
	Female	69(86.3)
Religion	Yes	42(52.5)
	No	38(47.5)
Motivation for applying to nursing	Appropriate	43(53.8)
	Recommendation by parents and teacher	18(22.5)
	Have a service job	1(1.3)
	High employment rate	16(20.0)
	Overseas expansion Others	1(1.3)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60(87.5)
	Neutral	20(25.0)
	Dissatisfied	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ied	41(51.3)
	Neutral	35(43.7)
	Dissatisfied	4(5)
Preferred learning method	Colleague video	72(90.0)
	Autonomic actual training	49(61.3)
	Special Lecture	0(0.0)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59(73.8)
	Publishing company video	22(27.5)
Academic achievements	Fine	20(25.0)
	Medium	37(46.3)
	Poor	23(28.7)

### 3.2 가설 검정

제1가설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자기효능감이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교육 시행 전 자기효능감 총점은 3.52±0.45점 이었고, 교육 시행 후 3.66±0.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04, p=.045)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2.23, p=.029), 사회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77, p=.443).

<Table 2> Change in Self-efficacy at Pre-Post test (N=80)

Variables	Pre	Post	t	p
	M±SD	M±SD		
Self-efficacy	3.52±0.45	3.66±0.43	-2.04	.045
General self-efficacy	3.53±0.46	3.69±0.48	-2.23	.029
Social self-efficacy	3.48±0.60	3.56±0.58	-0.77	.443

제2가설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수행자신감이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육 시행 전,

활력징후 수행자신감은 1.90±0.94점이었으나, 교육 시행 후에는 4.06±0.68점으로 2.16점 증가하였고, 위관영양, 근육주사, 기관절개관 관리 순으로 모두 교육 시행 후 수행자신감이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 시행 전·후 수행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18.50, p <.001) 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Change in Self-Confidence at Pre-Post test (N=80)

Item(Level of difficulty)	Pre	Post	t	p
	M±SD	M±SD		
Self-Confidence	1.76±0.80	3.81±0.54	-18.50	<.001
Vital sign(Low)	1.90±0.94	4.06±0.68	-16.79	<.001
Intramuscular injection(Middle)	1.44±0.84	3.35±0.73	-16.36	<.001
Gastric gavage(Middle)	1.70±0.95	3.74±0.79	-15.82	<.001
Tracheostomy tube care(High)	1.49±0.90	3.46±0.78	-14.97	<.001

제3가설 :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공만족도가 교육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육 시행 전 전공만족도는 4.10±0.42점 이었고 교육 시행 후 4.27±0.48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42, p=.018)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전공 일반만족도(t=-2.59, p=.012)와 교과만족도(t=-2.01, p=.04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회적만족도(t=-0.60, p=.552)와 관계만족도(t=-1.64, p=.1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Change in Department Satisfaction at Pre-Post test (N=80)

Variables	Pre	Post	t	p
	M±SD	M±SD		
Department Satisfaction	4.10±0.42	4.27±0.43	-2.42	.018
General satisfaction	4.07±0.50	4.27±0.48	-2.59	.012
Social satisfaction	4.51±0.48	4.56±0.48	-0.60	.552
Course satisfaction	3.78±0.65	3.99±0.71	-2.01	.048
Relation satisfaction	3.82±0.66	3.99±0.71	-1.64	.106

### 3.3 수행능력 평가

대상자 80명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행능력은 활력징후 측정이 평균 92.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헐적 위관영양(91.05점), 기관절개관 관리(89.18점), 근육 주사(86.4점) 순이었다.

(Table 5) Competence evaluation (N=80)

Item(Level of difficulty)	M±SD
Total Item	89.87±2.49
Vital sign(Low)	92.85±4.05
Intramuscular injection(Middle)	86.40±6.86
Gastric gavage(Middle)	91.05±4.10
Tracheostomy tube care(High)	89.18±5.42

#### 4. 논의

간호학생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간호학 전공 과목은 임상실습 과목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상 현장에의 적응,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23]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1].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투입되기 전의 저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인 활력징후 측정, 근육주사, 간헐적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교육 참여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4, p=.045$ ). 이는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 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Jho[1], Son, Kim, Song과 Kwon[2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웹기반 학습 이후 혈압 측정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던 Lee[25] 결과와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교육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Park과 Lee[26]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실습교육 구성이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사전학습이 효과적이었다는 Park[17]연구와 자율학습이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Song[16]의 연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시 강사의 시범과 피드백을 통한 정확한 술기 습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Kim과 Lee[27]의 교육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사전 동영상 학습과 이론, 시범과 자율 학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었으므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의 하부 영역별로 보면 일반적효능감( $t=-2.23, p=.029$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효능감

( $t=-0.77, p=.443$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판단보다 대인관련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판단이 더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 Jho[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간호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수행자신감은 교육 참여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4, p=.045$ ). 이는 웹기반 학습 후 유치도뇨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상승한 연구 Jho, Go와 Kim[28], 융복합 교육을 한 후 피하주사와 유치도뇨의 수행자신감이 상승한 Jung과 Kwon[18] 연구와 일치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하’ 난이도의 활력징후 측정이 수행자신감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 근육주사 순으로 수행자신감이 상승하였다.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활력징후 측정은 ‘하’ 난이도에 해당되며, Kim과 Kang[11] 연구에서도 활력징후 측정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은 기본간호이며, 임상실습 수행 정도와 교육 방법에 따라 수행자신감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중·고 난이도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1]. 또한 핵심기본간호술의 향상을 위해서 임상실습 이후에도 교내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교육 참여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2, p=.018$ ).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으며,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전공에 만족할수록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핵심기본간호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커진다는 Shin[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습만족도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개발 시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16].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29]과 사례중심 실습 교육[30] 등의 다각적인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31].

본 연구의 수행능력 평가는 교내실습을 모두 이수한 2학년 대상의 Park[17]의 연구에서 평균 91.35점 보다 낮

은 평균 89.87점 이었다.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관찰이나 경험이 거의 없었던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점수가 낮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임상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의 개인 판단이 요구되는 수행평가가 아닌 KABONE[8]에서 제시한 프로토콜을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순 평가였으므로 또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동영상 분석의 사전학습 및 이론교육, 실습 및 자기주도적 자율실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과과정 이외에 효율적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또한 고학년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 개 대학의 간호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단일군 전후설계로 연구가 수행되어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및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단일군 전후설계연구이다. 교육을 받은 후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및 전공만족도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어, 융복합기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저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추후 다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임상현장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M. Y. Jho,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21, No. 3, pp. 292-301, 2014.  
 [2] M. J. Kim, S. Y. Yoo,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2, No. 1, pp. 105-118, 2014.  
 [3] O. Hughes, B. Wade, M. Peters, "The effects of a synthesis of nursing practice course on senior nursing students' self-concept and role percep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2, pp 69-72, 1991.  
 [4] Y. S. Byeon., N. Y. Lim, K. S. Kang, M. S. Sung, J. S. Won, I. S. Ko, S. O. Chang,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or new graduate nurs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10, No. 1, pp. 47-56, 2003.  
 [5]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143-154, 2007.  
 [6] S. Kelly, N. Courts,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ew graduate nurse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30, No. 5, pp. 332-337, 2007.  
 [7] M. S. Yoo, I. Y. Yoo, Y. O. Park, Y. J. Son. "Comparison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different instructional methods for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3, pp. 327-335, 2002.  
 [8]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third edition. 2014. <http://www.kabon.or.kr/kabon10/index.php>.  
 [9] M. S. Moon,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4, No. 1, pp. 15-47, 1998.  
 [10] S. O. Kim, B. H. Kang,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172-182, 2016.  
 [11] E. H. Kim,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 of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on Job Satisfaction o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107-116, 2016.
- [12] W. Lauder, R. Watson, K. Topping, K. Holland, M. Johnson, M. Porter, “An evaluation of fitness for practice curricula: Self-efficacy, support and self-reported competence in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and midwiv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7, No. 14, pp. 1858-1867, 2008.
- [13]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3, pp. 380-386, 2008.
- [14] J. H. Yang, K. M. Park, M. J. Kim, Y. O. Ya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11-2622, 2012.
- [15]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 [16] M. R. Song, E. M. Kim, S. J. Yu, “Analysis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Basic Nursing Skill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90-398, 2012.
- [17] J. H. Park, “The Effects of Clinical Convergence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51-58, 2016.
- [18] M. S. Jung, Y. S. Kwon,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Th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295-302, 2015.
- [19] H. Y. Jin, K. Y. Park, K. Y. Park, M. J. Kim, Y. O. Ya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11-2622, 2012.
- [20]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No. 2, pp. 663-671, 1982.
- [21]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22]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23]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2, No 1, pp. 27-35, 2003.
- [24] H. S. Nam, K. A. Son, S. H. Kim, Y. S. Song, S. H. Kwon, E. H. Oh, “The effects of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on self efficacy,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nursing skills”, *Journal of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5, No. 6, pp. 1353-1360, 2014.
- [25] S. H. Lee, “Effectiveness of web based learning program on self efficacy,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measurement of blood press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19, No. 1, pp. 66-73, 2012.
- [26] S. N. Park, S. K. Lee,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15, No. 1, pp. 6-13, 2008.
- [27] S. M. Kim, E. J. Lee, “The effects of CPR clinical training on CPR performance and self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759-5765, 2011.
- [28] B. H. Cho, M. H. Go, S. Y. Kim, “Effectiveness of Based Learning on Competence, Knowledge, and Confidence in Foley-Catheter Management in Basic



-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1, No. 3, pp. 248-255, 2004.
- [29] E. H. Park, S. Y. Hwang, “Effects of a web-based Learning Contents in Operating Room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9, pp. 384-394, 2011.
- [30] Y. I. Kim, “Effects of the Case-focused intravenous Injection Practice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Clinical Performance”,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1.
- [31] I. O. Moon, K.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저자소개

현 일 선(H-Seon Hyeon) [정회원]



- 2009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박사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노인간호학

배 윤 조(Yun-Jo Bae)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보건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학, 간호윤리, 간호관리학